

李, 인도·베트남 순방... '글로벌 사우스 외교' 본격 가동

4대그룹 총수 등 경제사절단 동행
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반 논의
AI·조선분야 등 신규 협력사업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5박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이번 순방에는 4대그룹 총수들도 함께해, 공급망과 신산업 협력 확대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기에 올라 인도 뉴델리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19~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뉴델리를 방문한다. 이날 오후 뉴델리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수브라마니야 자이산카르 인도 외무장관 접견 및 동포 만찬간담회를 소화한다.

이튿날인 20일에는 간디 추모공원에 헌화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소인수 회담, 확대회담을 하며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또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에 21일에는 두 번째 방문지인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한다.

이번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인도 방문의 기대 성

과로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인 가동'을 꼽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인도는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외연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 파트너"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전략적 협력 확

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동력 창출도 기대 성과로 꼽았다. 위 실장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 개선 협상 가속화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 불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조선·해양, 금융, AI(인공지능), 방산 등 전략분야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린 신규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물꼬를 트고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공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다지고, 재외동포와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순방에는 200여명 규모의 경제사절단도 함께하며 '세일즈 외교'도 이어갈 전망이다.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

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이번 인도·베트남 순방에 함께한다. 한국경제인협회(인도)와 대한상공회의소(베트남)가 나라별 순방을 주관하며 현지 비즈니스 포럼과 정부 고위 관계자 면담 등이 예정돼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이 있고, TV·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연구·개발(R&D) 센터까지 세웠다. 베트남에선 제조 공장 6곳과 R&D 센터 1곳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베트남 생산 법인에 12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투자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시장을 핵심 전략 지역으로 삼고 있으며, 인도 소비자들을 공략할 맞춤형 레저용 차량(RV)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다. LG전자는 지난해 인도 법안을 상정했고, SK는 베트남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과 가스 발전 사업 등 에너지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정부 “北 도발, 한미일 연계 대비태세 유지”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

北, 이달 들어 네 번째 미사일 발사
청와대 안보실, 도발행위 중단 촉구
합참, 제원 분석... 감시·경계 강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9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안보실은 북한이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현중 1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도 함께 했다.

안보실은 이날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에 나서는 만큼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최근 빈번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며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보실은 이 대통령에게 이번 상황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 보고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10분쯤 북한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140km를 비행했으며, 북한이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2022년 5월 7일 이후 약 4년 만이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 8일 후 11일 만으로, 이달 들어서만 총 네 번째다. 당시 북한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그 전날인 7일에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됐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엔 10월22일과 11월7일, 올해는 1월4일과 같은 달 27일, 3월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metro

李,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재요청

강훈식 비서실장 “권력형 비리 예방”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사실을 전하면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



강훈식 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에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관련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

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 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에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서예진 기자

metro

IMF “올해 韓 1인당 GDP 3만7412달러”

2028년 4만달러 돌파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5년 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대만보다 1만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대만이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배경으로 급성장을 이어가면서다.

1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지난해(3만6227달러)보다 3.3% 늘어난 3만7412달러로 예상했다. 또 오는 2028년에 한국의 1인당 GDP를 4만695달러로 전망,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먼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IMF는 대만의 1인당 GDP 전망치를 4만2103달러로 집계했다. 전년보다 6.6% 급증한 수치다. 3년 뒤인 2029년에는 5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과 대만의 GDP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격차 폭은 올

해 4691달러, 2027년 5880달러, 2028년 6881달러, 2029년 7961달러, 2030년 9073달러로 계산됐다. 이 같은 전망대로라면 2031년에는 양국 간 격차가 1만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이미 지난해 22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역전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대만의 고성장이 이러한 전망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대만의 쾌속 성장 배경과 관련, “테크업체 비중이 높아 최근 인공지능(AI) 사이클에 따른 레버리지(지렛대) 효과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국내 소비가 부진한 양극화 성장이 지속되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IMF는 올해 일본의 1인당 GDP를 두고는 3만5703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3만5973달러)보다 300달러 가까이 줄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metro

레바논 헤즈볼라, 이스라엘군 보복 경고

>> 1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서 계속

백악관이 공식 논평은 내놓지 않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약간 교묘한 행태를 보였다”며 “그들은 다시 협력을 봉쇄하려 하지만 우리를 협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늘 중(미동부시간 18일) 협상의 진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황실 회의에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킷 베스너트 재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이란 무장단체 레바논 헤즈볼라의 나임 카셈 지도자는 18일 이스라엘이 휴전합의 이후에도 군사 작전을 벌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쪽 편에서만 지키는 휴전은 있을 수 없다”며 “이스라엘군의 정전 위반과 공격에 상응하는 보복전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